

지역혁신동반성장 브리프

발행일 2024년 1월 31일

발행처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CRC 401-2호

발행인 이희용

작성인 우희정

편집인 배수민

<http://www.rigc.re.kr/index>

| 요약

배경 및 목적 지방소멸 및 지방대학의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경산시와 영남대학교 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공동전문센터로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RIGC)를 신설함. 본 연구는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RIGC)의 역할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외부환경 진단(PEST 분석)을 통해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 간 연계협력을 위해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첫째, 정책환경으로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경산시 지역경쟁력 확보 시급, 둘째, 경제환경으로 산업 및 인구유출로 인한 경산시 지역경제 침체, 셋째, 사회환경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산시 지방소멸 위기 가시화, 넷째, 기술환경으로 ICT 기술 발달로 인한 경산시-영남대 간 협업기회 확대를 제시함

결론 및 제언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RIGC)의 역할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RIGC를 통한 지역혁신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임. 둘째, 지자체-대학-지역기업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지원임. 셋째, 지역사회 현안문제 연구 및 해결방안 모색임. 경산시의 싱크탱크로서 경산시와 영남대의 발전과 시민(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상생과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RIGC)의 역할 및 향후 방향]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 연구원
우희정

1. 들어가며

-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인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가 도래함. 그동안 지역혁신을 위한 각종 산학협력 사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 되어왔으나, 여전히 대학은 입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임. 이제는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
-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주도와 지역특성을 강조한 지방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교육부 또한 이러한 국정 기조에 맞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지역경쟁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외부환경 진단을 통해 ‘지(地)-산(産)-학(學)’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방소멸 및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대응 차원에서 설립된 지역혁신동반성장센터(Regional Innovation & Inclusive Growth Center, 이하 ‘RIGC’)의 역할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2. RIGC 설립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경산시 지역경쟁력 확보 시급

- 인구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은 일자리 감소, 인재 유출,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하여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음
-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응하고 지방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이 각각 혼자만의 경쟁력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특히, 라이즈(RISE)사업 또한 지자체와 지방대학, 지역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호혜적 공동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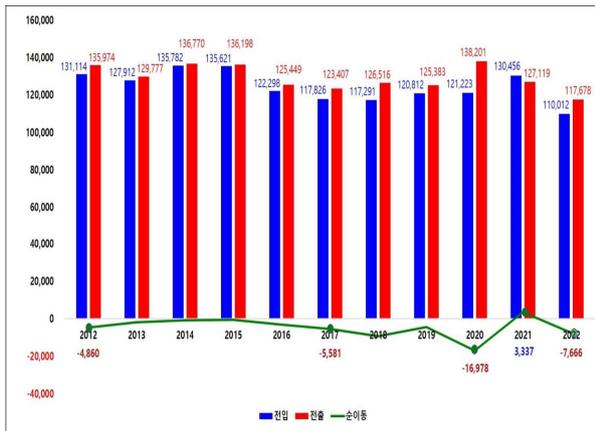


〈그림 1〉 지자체-대학-지역기업 지역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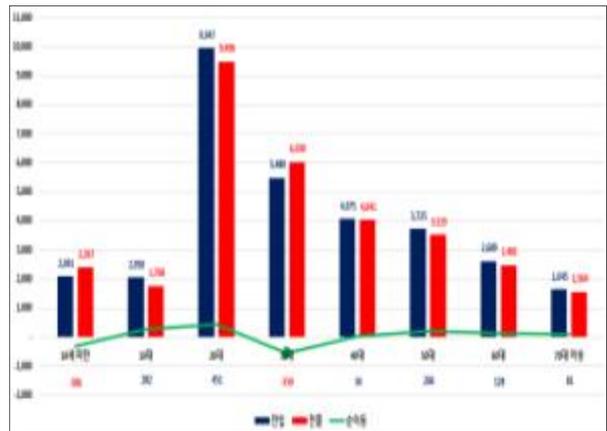
나. 산업 및 인구유출로 인한 경산시 지역경제 침체

- 경상북도 시도 간 이동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순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시도 간 이동 구조가 10년 동안 고착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22년 순유출자 수(7,666명)는' 12년(4,860명) 대비 57.7% 증가함
 - '12년부터 22년까지' 11년간 순유출된 인구는 총 52,125명으로 집계됨
- 경산시 연령별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순유출자 수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유입자 수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2년 순유출자 수는 30대(550명), 10세 미만(306명), 40대(34명) 순으로 나타남
 - '12년보다 30대의 순유출자는 545명 증가함
 - '22년 순유입자 수는 20대(451명), 10대(282명), 50대(206명) 순으로 나타남
 - '12년보다 20대의 순유입자는 119명 감소함

(단위: 명)



자료: 동북지방통계청(2023). 경상북도 인구이동 현황 <그림 2> 시도 간 전입 전출 및 순이동 추이(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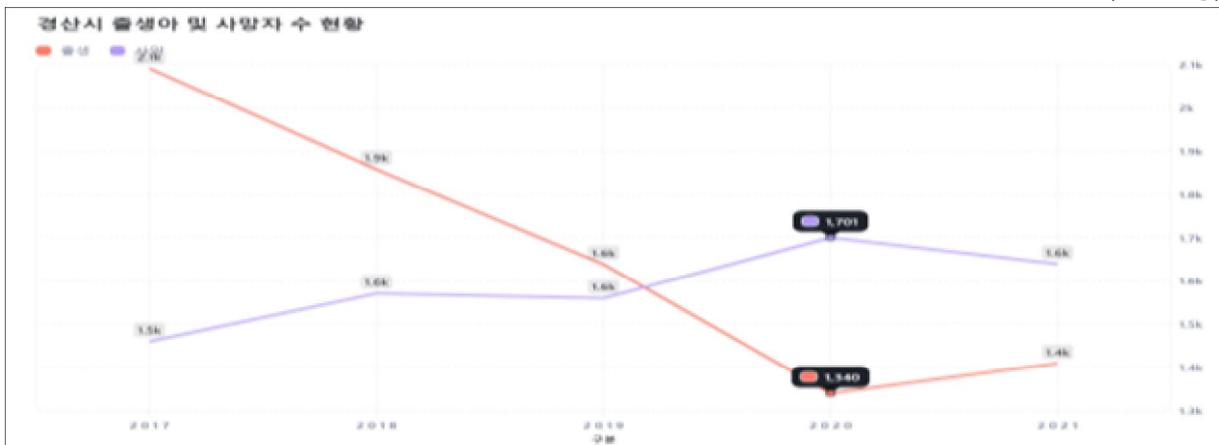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 경상북도 인구이동 현황 <그림 3> '22년 기준 연령대별 이동 현황

- 한국은행(2023)에서 청년층 지역간 이동요인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임금, 고용률, 성장률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 유출이 심화되었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됨
 - 이외에도, 수도권에 주력산업의 집중화 현상 및 문화 및 의료서비스 격차도 비수도권 청년층 이동요인으로 확인됨
- 수도권으로의 주력산업 및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경산시의 특성 및 경쟁력을 파악하여 신산업 분야 육성 및 유치 등의 전략 마련이 필요함

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산시 지방소멸위기 가시화

- 우리나라는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 크로스 현상(dead-cross)’을 이미 경험함.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66%가 해당되며, 약 1/4은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함
-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77명이고, 사망자 수는 30만 4,948명으로 자연 감소(-3만 2,571명)가 처음으로 현실화됐으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최대 6.9배에 달하는 지자체도 발생하였음
- 경산시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1,340명이고, 사망자 수는 1,701명으로 자연 감소가 -361명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남

(단위: 명)



자료: 경산시 통계연보(2023)

〈그림 4〉 경산시 출생아 및 사망자 수 현황

-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위기
 -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률은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은 1만여 명(5.3%)인 것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3만여 명(10.8%)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 양정호(2023)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수 25만명,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이상의 대학이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과 신입생 미충원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지방대학의 최소 5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대학만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인구 감소, 지역경제 위축, 지방소멸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관련 산업계가 연계 협력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라. ICT기술 발달로 인한 경산시-영남대 간 협업 기회의 확대

-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형 로봇 등의 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수한 SW인재 확보가 필요해짐
- 경산시 측면에서는 SW인재 확보는 SW산업 발전과 동시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과의 협력이 중요함
- 이와 더불어, 지방대학이 양성한 지역인재들이 해당 지역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추진해야하므로 지역기업과의 협업도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남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실전중심 자기주도형 교육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인재를 양성하는 ‘42경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표 1〉 지역경쟁력확보를 위한 SW인재양성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영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디지털융합대학을 신설(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부 통합·개편)해 240명 규모의 컴퓨터학부를 만들 예정 - 2025년 자동차SW학과(40명)와 총 80명 규모의 SW응용학부(AI데이터사이언스전공, 응용 SW전공, 미디어융합전공) 신설 계획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전중심 자기주도형 교육시스템 ‘42경산(소프트웨어인재 양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에게 배우며,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 - 평등한 기회를 위한 무료교육 - 현장 신뢰에 기반한 비학위 과정 -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 복잡하게 연결되고 융합되고 대체되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 속에서 시간, 공간, 조직 간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이 용이해짐
- 따라서 지자체와 지방대학, 더 나아가 산업계 까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SW개발 전문가로 성장, 그리고 창업 및 취업까지 이르는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3. RIGC의 역할 및 향후 방향

가. 지역혁신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 차원에서 지자체, 지방대학, 지역기업 핵심주체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혁신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해짐
- RIGC는 산학협력사업만이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사업, 대학·청년 정주환경 지원사업, 유학생·해외교류사업 등을 포함한 관련 정책의 긴밀한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경산시의 산학협력 업무를 총괄할 전담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일례로, ‘(가칭) 1만 글로벌리더(유학생) 양성’ 사업을 통해 경북도 K-U시티 사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청년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임당 유니콘파크 내 지역기업 연계를 통해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맞춰 대학-기업-경산시-유학원으로 구성하는 전주 기적 시스템인 ‘경산드림(K-Dream)’ 구축을 통해 영남대 위상 제고 및 글로벌 대학도시로 입지를 다짐으로써 경산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나. (지자체-대학-지역기업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지원

- RIGC는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협업에 기반을 둔 지역혁신산업을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산학연계 교육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대학과 지역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체형 지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산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일례로, 경산 임당역 중심으로 창업열린공간, 지식산업센터,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이 모인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임당 유니콘 파크가 조성될 예정임. 이 곳에서 초기 창업의 아이디어발굴부터 창업교육, 기술혁신, 성장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즉, RIGC는 영남대 학생들이 ‘42경산’ 프로그램 및 창업열린공간에서 SW교육, 창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줌으로써 지역인재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함
-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면 경산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더 나아가, 산학협력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대학의 자원을 연계하는 지산학 연결 중개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다. 지역사회 현안문제 연구 및 해결방안 모색

- RIGC는 경산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지역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지역문제 해결형 리빙랩’을 운영하고자 함
 - 리빙랩 플랫폼 내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을 내실화함으로써 참여 주체들의 공통목표를 공유하게 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대학 리빙랩 사업은 주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리빙랩이 대부분이어서 교육과 연계된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음. 이에 RIGC를 플랫폼으로 삼아 지역문제 해결형 리빙랩인 ‘(가칭)경산 유니버스 리빙랩’을 추진할 수 있음
- ‘(가칭)경산 유니버스 리빙랩’은 경산시의 연구전담 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분야와 연계된 거점 연구소 성격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가칭)지역상생 정책연구단’ 운영을 통해 경산시의 현안문제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며, 상시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함
 - ‘지방시대 대응 지역혁신 동반성장 포럼’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관·학·연 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함
-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및 연구된 자료와 정보는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 및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강현수(2022).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교육부(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보도자료.
 김준래(2020). 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회의 솔루션을 위한 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천구·박현준(202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류방란(2023). 지역관 세계. 지방시대,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 한국교육개발원.
 성지은 외(2020). 사회문제 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확산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현구(2019). 과학기술·ICT의 현장 적용을 위한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오세홍 외(2013).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충환. (2023). “영남대, SW중심대학 선정…미래 먹거리 산업 인재 육성 박차”. 대구일보.
 이소영·박진경(2021). 지방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성철 외(202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토연구원.